

가족, 학교, 비행친구의 비행영향 효과의 연령별 비교*

이 철**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발생에 있어서 가족과 학교와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손베리의 상호작용적 이론에 기초한 연구가설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조절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토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초등패널과 중등패널의 설문조사자료에서 11세에서 18세 인구집단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변인 효과들의 연령별 비교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 가설의 기대와는 달리 - 부모애착의 비행억제효과는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으며,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접촉억제 효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부모애착이 학교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는 가설의 기대에 부합하게 나이에 반비례하여 약화되었다. 학교 참여가 비행과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하는 효과는 공히 14세-18세의 청소년들에게서만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가설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비행친구가 비행을 촉진하는 효과는 12세에 크게 상승하여 18세 인구집단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밖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전 연령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 비행발생과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점을 밝혔다. 본 연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발생에 있어서 - 손베리의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 가족과 비행친구의 대립구도가 청소년기의 거의 모든 연령에 걸쳐 유지된다는 점이다.

주제어 : 손베리, 상호작용 이론, 청소년 비행, 비행친구, 부모애착, 학교 참여

* 본 논문은 2008년 6월 20-21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전기학술대회의 발표문을 대폭 개정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발표문과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발표시점에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던 초등패널의 4차연도(13세)와 중등패널의 5차연도(18세)의 자료를 보충하였다. 둘째, 발표문에서는 모든 경로를 Free로 두고 해당 경로만 등치제약하는 방식(이학식·임지훈, 2007)을 사용하였던 반면, 본 논문에서는 모든 경로를 제약한 후 해당 경로만 Free로 두는 방식(노형진, 2002)을 사용하였다. 필자는 익명의 심사자들의 건설적인 비평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그 분들의 정당한 지적을 완전히 소화해내지 못한 것은 오로지 필자의 부족함 때문이다.

** 동양대학교

I. 서 론

1990년대의 일탈 연구에서는 현상을 보다 동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도가 대두하였다. 연구의 주된 관심은 병인론적 설명에서 폭 넓은 연령대에 걸쳐 진행되는 일탈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연구들(이성식, 2001; 이상문, 2007; 노성호, 2007)이 일탈 현상의 동학에 관해 보다 세밀한 진술을 생산해내고 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흐름은 메인스트림 일탈 연구에서 주요 이론의 하나인 사회학습 이론의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탈 현상의 발전론적 연구 경향에 대한 소개논문(이순래·박철현, 2000)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한 연구가 경험적 지지를 상대적으로 얻지 못한 긴장이론의 발전론적 버전(Agnew, 1997)보다도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된 연구 경향은 이미 1987년에 발표된 손베리(Thornberry)의 상호작용적 이론(Interactional Theory)이 크게 주목을 끌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손베리의 상호작용적 이론은 통합 이론적 측면과 발전론적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유대 이론(Hirschi, 1969)과 사회학습 이론(Akers, 1977)의 통합 이론인 동시에, 이 두 이론의 요인들(가정, 학교, 비행친구, 가치 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청소년기의 연령에 따라 발전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손베리의 상호작용적 이론에 대한 경험조사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Thornberry et al., 1991; 1994; Jang, 1999; 2002; 이성식, 2002; 이철, 2008). 손베리 모델에 대한 몇 안 되는 경험조사 가운데 사회유대 이론적 요소들만을 조사한 연구(Thornberry et al., 1991)와 사회학습이론적 요소들만을 조사한 연구(Thornberry et al., 1994)를 제외하면, 통합론적 관점과 발전론적 관점을 동시에 검증한 작업으로는 미국에서 장의 연구(Jang, 1999; 2002)와 우리나라에서 이성식(2002)의 연구와 이철(2008)의 연구 정도만 있을 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손베리 모델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정에 맞게 구성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보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가정과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 시기(11-18세)에 연령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여, 손베리 진술과의 일치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한 변인효과들의 크기를 청소년의 전 시기에 걸쳐 연령별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 원인과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I. 이론적 논의

1. 손베리의 상호작용적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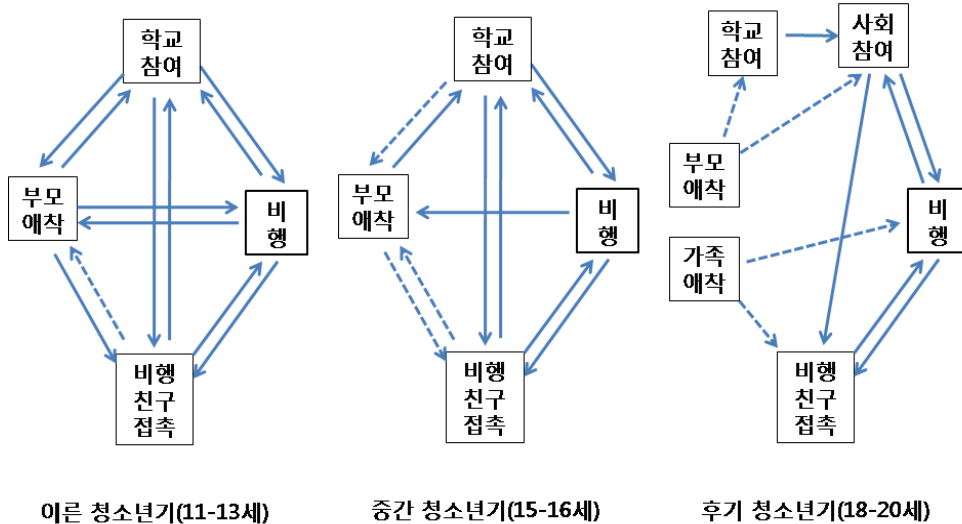
손베리(1987)는 주류 일탈이론이 일탈을 종속변수로만 다루며 일탈의 지속과 중단과 같은 상이한 발전 동학을 설명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이 문제점을 벗어나는 상호작용적 이론(interactional theory)을 구축하였다. 손베리는 - 독특하게도 -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모든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적 효과를 전제하는 전략을 취한다. 손베리는 이 관점에 따라, 예를 들면 부모와의 유대 약화가 일탈을 저지를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일탈 행위가 부모와의 유대 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으며, 학교 참여가 비행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비행이 학교 참여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¹⁾.

손베리는 이러한 고려에서 사회유대 이론(Hirschi, 1969)과 사회학습 이론(Akers, 1977)을 통합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 이론은 통제의 부재나 불충분이 일탈행위를 야기한다는 사회유대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통제의 부재는 무조건적으로 일탈을 야기하는 것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학습 이론의 전제로 보완된다. 말하자면 통제의 부재는 일탈행위를 포함하는 다양한 행위옵션을 행위자에게 열어줄 뿐이며, 일탈 발생에서 일탈의 학습과정과 강화과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손베리는 사회유대이론에서 부모애착과 학교 참여와 관습적 가치의 변인을, 사회학습 이론에서 비행 친구와 비행 가치의 변인을 취한다. 이 변인들은 앞서 말했듯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다음 시점의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제된다.

손베리는 이상의 생각에 기초하여 여섯 가지 변인들이 청소년기에 걸쳐 상호작용하는 유형에 대해 세 가지 하위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학교 참

1) 이 관점변경은 그밖에도 주요 변인들 간의 다양한 상호 작용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진술을 생산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비행친구 접촉이 비행적 가치를 이끌어내어 일탈행위를 생산한다고 보는 사회화 관점(socialization perspective, Matusueda, 1982, Miller, 1959)과 소위 유유상종(鳥鳥相從)의 법칙("Birds of one feather flock together.", Glueck et al., 1950: 164)에 따라 비행청소년이 비행친구를 찾는다고 주장하는 선택 관점(selection perspective, Hirschi, 1969: 208) 사이에서 상호작용적 이론이 둘 다 가능하다는 상호작용적 관점(interactional perspective)을 제안했던 데에 있다. 상호작용적 관점은 손베리와 동료들의 1994년 연구에서 경험적 근거를 발견하였다.

여, 비행친구와 비행 간의 상호 인과관계가 세 연령대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실선: 강한 효과, 점선: 약한 효과)

[그림 1] 부모애착, 학교 참여,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 상관관계

11세에서 13세로 정의된 이른 청소년기는 - 손베리에 따르면 - 아동이 주로 가정에서 활동하므로 부모 애착 변인이 핵심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 시기에는 부모에 대한 감정적 애착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상호작용이 비행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비행친구 접촉이나 학교 참여가 부모애착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후자가 전자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 접촉 사이에는 억제하는 영향력은 대등하게 행사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말하자면, 학교 참여가 비행친구를 억제하는 효과와 거꾸로 비행친구가 학교 참여를 억제하는 효과의 크기는 유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15세와 16세로 정의된 중간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청소년들이 점차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며 이들의 활동무대가 가정에서 학교로 바뀔 때 따라, 부모 애착 변인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부모애착이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하는 효과의 약화로 나타나며, 상호작용 촉발자 역할이 부

모애착에서 학교와 비행친구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이전에 비해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 접촉이 부모애착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부모애착이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를 억제하는 효과보다 강해진다. 그리고 부모애착의 감소가 비행을 결과하기보다는 비행이 부모애착의 감소를 결과하는 관계가 보다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도 학교 참여가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하는 효과와 반대로 후자가 전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대등한 수준에서 발휘될 것으로 고려된다.

18세에서 20세로 정의된 후기 청소년기에는 부모애착과 학교 참여가 다른 변인들에 미치는 효과가 중간 청소년기에 비해 더욱 약화된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변인이 등장하며, 바로 핵심 변수의 역할을 맡는다. 그것은 이성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어나는 자기 가족에의 애착과 관습적 활동에의 참여이다. 이 시기에는 청소년들이 성인기 준비에 보다 전념하는 시기이므로 관습적 사회에의 참여가 비행에 대해 영향을 가장 강하게 미치는 변인이 되며, 비행친구의 효과는 이전 시기보다 더욱 약화된다. 이 시기에 비행친구의 효과는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과 관습적 사회활동보다 영향력이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손베리 모델에서는, 전자는 비행과 직접적인 상호작용만 가지는 반면 후자의 두 변인은 직접적인 상호작용 외에도 비행친구로 매개된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설명들을 청소년들의 생활을 둘러싼 교육제도 및 제반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와 자녀 양육은 자율보다는 타율의 원칙에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는 총 수십조 원에 달하는 사교육비를 지출할 정도로 명문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기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 때문에 미국에서보다 중간 청소년기가 늦게까지 지속되며 후기 청소년기가 보다 늦은 시점에 시작할 것으로 전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

2. 부모애착, 학교 참여, 비행친구의 비행 영향 효과의 연령대별 변화

손베리 모델은 변인들 간의 모든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 진술하고 있으며, 이것은 - 본 연구에서 축소된 모델을 전제하더라도 - 최소한 네 변인이 다른 변인들과 맺는 열

두 가지 관계들이 세 단계에 걸쳐 변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경험조사를 통해 검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여기서는 경험조사를 염두에 두고 변인들을 주류 일탈이론에서처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둔 후 이 관계들의 연령별 변화에 대한 진술만을 도출하겠다. 이 때 세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손베리의 견해에 따라 부모애착을 최초의 독립변수로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 접촉은 독립 변수이자 부모애착의 매개변수로 두는 구도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한 관계도의 모든 효과들이 청소년기의 시기 별로 변화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부모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 손베리 모델에 따르면 - 초기 청소년기에는 강하다가 중간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것으로 전제된다. 이 가설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경험적 검증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초기청소년기에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는 공통적으로 입증되었지만 중간청소년기에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청소년들의 부모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조사한 장(Jang, 1999)의 연구는 이 영향력이 10대 전 시기에 걸쳐 꾸준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10-12세와 14-16세의 한국 청소년들의 종단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철(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대략 중간 청소년기를 전후해서 사라진다고 보고한다. 지위비행에 대한 부모애착의 억제력은 중간 청소년기까지 존재하며, 같은 변수의 중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중간 청소년기에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애착이 학교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 손베리 모델에 따르면 - 중간 청소년기까지 강하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약화되는 것으로 예견된다. 그리고 부모애착이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하는 효과는 중간 청소년기부터 약화되며 후기 청소년기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종합하자면, 부모애착이 다른 변인에 미치는 모든 효과는 나이 많은 인구집단일수록 약할 것으로 전제된다. 단지 부모애착이 학교 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후기 청소년기에 비행과 비행친구 접촉에 미치는 효과는 중간 청소년기에 약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학교 참여가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와 비행친구접촉을 억제하는 효과는 초기 청소년기에 나타나 중간 청소년기까지 꾸준하다가 후기 청소년기에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행친구 접촉의 비행촉진 효과는 초기 청소년기에 발생하며, 중간 청소년기에 정점에 이른 후 점차 약화될 것이다. 이 내용은 장(Jang, 1999)의 연구와

이철(2008)의 연구에 의해 검토되었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16세까지 조사한 이철의 연구에서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이 효과가 손베리의 기대보다 빠른 시점(12세와 14세)에 정점에 이른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비행친구 접촉의 비행촉진 효과는 U-자형 추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상승이 나타나는 시점이 초기 청소년기인지 중간 청소년기인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언급한, 효과들의 연령대별 변이는 다음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변인들 간의 효과의 연령대별 변화

		초기 청소년기	중간 청소년기	후기 청소년기	비고
부모애착	→비행	강	약/무	무	중간기 약화
	→비행친구	강	약	무	중간기 약화
	→학교 참여	강	강	약	후기 약화
학교 참여	→비행	강	강	약	후기 약화
	→비행친구	강	강	무	후기 약화
비행친구	→비행	발생	강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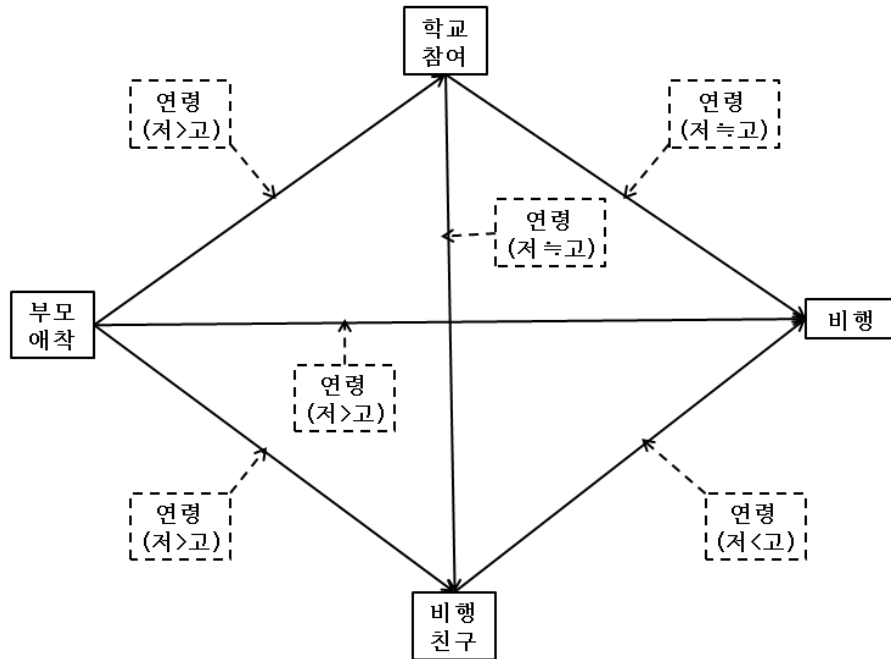
III.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비행에 대한 부모애착과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의 개별 효과와, 비행에 대한 부모애착과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와의 상호작용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경험적으로 추적하는 데에 있다. 이 작업은 동일한 측정도구로 상이한 청소년 연령집단을 설문한 후 해당 효과의 연령집단 간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초등패널과 중등패널 자료를 횡단조사 자료로 활용하고

자 한다. 패널조사 자료를 횡단조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이 아니다. 이 방법은 한 편의 구조적인 단점과 다른 한 편의 장점을 지닌다. 이 방법은 설문조사가 비교적 긴 기간(3년과 4년)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시간의 변화로 인한 영향이 조사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동일한 인구집단에서 여러 집단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문제를 가진다. 또한 두 패널조사의 자료에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반면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이유에서 설문조사 기간이 샘플에 비쳤을 수도 있을 영향이나 동일한 인구집단에서의 자료 수집으로 인한 편향의 문제들이, 개별 조사들이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는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는 사실로 어느 정도 상쇄되었을 것으로 전제하고자 한다. 연구자의 성급한 과도함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편향은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기에 걸친 비행과 비행관련 변수들에 대한 조사는 - 비록 제한된 조건이라 하더라도 -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의 초등패널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4년 동안, 중등패널은 중학교 2학년부터 5년 동안 실시된 결과, 현재 10세부터 18세의 연령대를 포괄하는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자료들 가운데 공통적인 설문으로 채집한 자료만을 추출하여 하나의 설문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각 연령의 인구집단에 대한 횡단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이 때 10세 인구집단(초4)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 연령이 손베리 모델에서 제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자료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검증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설문조사 자료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포괄한다. 이 연령 범위는 손베리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했던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대략 중간 청소년기까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래의 연구모델에 의거하여 수립할 가설들은 대략 손베리 모델의 초기 청소년기와 중간 청소년기에 대한 진술에서 도출한 것이다. 이 가설들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방법 가운데 조절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검증이 시도될 것이다.



[그림 2] 부모애착, 학교참여, 비행친구의 비행영향력의 연령별(11-18세) 비교 연구모델

[그림 2]의 연구모델은 부모애착을 최초의 독립 변인으로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접촉을 독립변인인 동시에 매개변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모델은 학교 참여 변인이 부모애착으로 매개된 간접효과와 비행친구 변인의 모든 간접효과를 파악하지 못한다. 반면, 이 모델이 파악할 수 있는 효과는 부모애착 변인이 다른 세 변인에 미치는 효과와 학교 참여 변인이 비행친구 변인과 비행 변인에 미치는 효과와 비행친구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이다.

효과들의 크기는 연령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애착 변인이 다른 세 변인에 미치는 효과는 11세와 18세의 연령집단에서 나이가 많은 집단일수록 작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 참여가 비행친구 변인과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11세와 18세의 모든 연령집단에서 대략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기대된다. 비행친구 접촉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11세와 18세의 연령집단에서 나이가 적은 인구집단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 후 꾸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전제들은 변인들 간의 관계가 11세부터 18세까지의 인구집단에서 보여줄 변화의 패턴에 대한 다음의 가설들로 정리할 수 있다.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 가설: 부모애착의 비행 억제 효과는 11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다.

부모애착의 비행친구접촉 억제 효과 가설: 부모애착이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하는 효과는 11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약화될 것이다.

부모애착의 학교 참여 촉진 효과 가설: 부모애착이 학교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는 11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약화될 것이다.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 가설: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는 11세부터 18세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학교 참여의 비행친구접촉 억제 효과 가설: 학교 참여의 비행친구접촉 억제 효과는 11세부터 18세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 가설: 비행친구 접촉의 비행 촉진 효과는 11세에서 18세의 연령집단에서 나이가 적은 인구집단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 후 꾸준할 것이다.

2. 연구자료, 변인의 측정,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연구원)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2차년도(5학년)와 3차년도(6학년)와 4차년도(중학교 1학년)에 수행한 면접조사 자료와,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을 상대로 5년에 걸쳐 수행한 설문 면접조사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청소년연구원 자료는 당해연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한 후, 청소년과 부모들을 조사하여 수집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1차 년도에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이후에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로 설문을 수행하였으며, 부모들은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화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10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18세)까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가 두 개의 패널조사 자료의 형식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패널조사 자료에

서 공통의 설문항들을 추출하여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연령별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케이스 수는 23,740이며, 초5 집단은 2,707, 초6 집단은 2,672, 중1 집단은 2,511, 중2 집단은 3,449, 중3 집단은 3,188, 고1 집단은 3,125, 고2 집단은 3,121, 고3 집단은 2,967이다.

부모애착 변수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과 부모감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의 정도를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착은 자녀가 부모와 얼마나 감정적·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느냐를 의미하며,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의 생각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한다”의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부모감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의 정도는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의 두 개의 설문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5개 항목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793이었다.

학교 참여 변수는 과목별 반성적 정도를 “매우 못하는 수준”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5개 항목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764이었다.

비행친구 접촉의 변수는 비행친구의 수를 참조하였다. 비행친구 변수는 지난 1년 동안 술을 마신 친구의 수, 담배를 피운 친구의 수, 무단결석을 한 친구의 수,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친구의 수,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빼앗기) 친구의 수,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친구의 수를 측정하였다. 여섯 가지 항목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773이었다.

독립변인의 측정설문들을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회전한 결과, 부모애착은 .721에서 .744, 학교 참여는 .688에서 .753, 비행친구는 .678에서 .797의 범위에서 세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비행 변수는 사이버 비행과 두 부류의 일반 비행으로 세 가지 구성개념을 구축하여 조사하였다. 사이버 비행의 구성개념(construct)은 인터넷게시판 등에 고의로 거짓 내용을 퍼뜨리기, 인터넷에서 불법소프트웨어 다운받아 사용하기, 다른 사람의 인터넷 ID/주민등록번호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기, 채팅하면서 성, 나이 속이기, 다른 사람의 컴퓨터/웹사이트 해킹하기, 채팅/게시판에서 상대방에게 욕설/폭언하기의 여섯 가지

행위를 선택하였다. 응답자 본인의 경험여부를 질문하여 “전혀 없다”의 응답은 0으로, “있다”의 응답은 1로 부호화한 후, 합산하여 지수화하였다. 첫 번째 부류의 일반 비행은 흡연, 폭행, 돈이나 물건 뺏기, 돈이나 물건 훔치기, 무단결석의 응답자 본인의 경험여부를 질문하여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지수화하였으며, 두 번째 부류의 일반 비행은 음주, 집단 따돌림하기,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협박하기의 경험여부를 질문하여 동일한 과정을 거쳐 지수화하였다. 세 항목의 크론바하 알파값은 .479이었다.

본 연구는 SPSS 12.0과 AMOS 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1. 구조모형의 적합도

부모애착, 학교 참여, 비행친구, 비행 개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구축하고 AMOS 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절대적합도를 나타내는 $\chi^2 = 23,386.589$ (d.f.=1,168) $p=0.000$ 이었으며, 상대적합도를 나타내는 표준적합도(NFI)=0.969, 상대적합도(RFI)=0.960, 증분적합도(IFI)=0.971, 비교적합도(CFI)=0.971이었으며, 간접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은 0.028이었다. $\chi^2/d.f.=20.02$ 로 수용기준치인 3.0 이하를 상당히 벗어났지만, 구조방정식 모델에서는 χ^2 값은 사례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모형적합도 판단을 위해서는 상대적합도 지수나 RMSEA 지수를 참조한다(이학식·임지훈, 2007). 모형적합도 권장기준에 대해 확립되어 있는 단일기준은 없으나 선행연구들(Bentler & Bonett, 1980; Fornell, 1983; Bollen, 1989; Jöreskog & Sörbom, 1993; Hair et al., 1998)을 참조하면 χ^2 은 $p>0.05$, NFI, RFI, IFI, CFI에 대해서 각각 0.9 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RMSEA 지수는 χ^2 값을 자유도와 표본의 크기로 조정한 값으로 권장 수용기준은 .08이하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합도와 RMSEA 값의 권장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어서 연구모형은 채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심질문인 통합모델의 변인들의 연령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방법 가운데 조절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표본

을 집단내 동질성과 집단간 이질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위표본으로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집단간 해당 효과들의 유의성과 차이를 포착하는 데에 있다(Bollen, 1989, Jöreskog & Sörbom, 1993). 조절효과 분석방법은, 1) 등치제약모형(equality constraint model)에서는 연령별 하위집단별로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같은 값을 가지도록 제약하고, 2) 자유모형(free model)에서는 연령별 하위집단별로 조절변수에 의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로를 제외한 구조모형의 모든 경로를 같은 값을 가지도록 제정한 후, 3) 모형간 카이제곱 값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검토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등치제약모형에 비해 하나의 관계만을 자유(free)로 설정한 모형이 카이제곱 값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면 조절변수가 그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가설들이 공분산구조분석을 통해 지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Free 모형이 등치제약 모형보다 우수하다는 점이 χ^2 차이 검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둘째 조절효과의 방향성이 가설의 기대와 일치하여야 한다.

〈표 2〉에서는 등치제약모형과 자유모형별 카이제곱 통계량 및 자유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2〉 연령별 하위집단의 카이제곱 차이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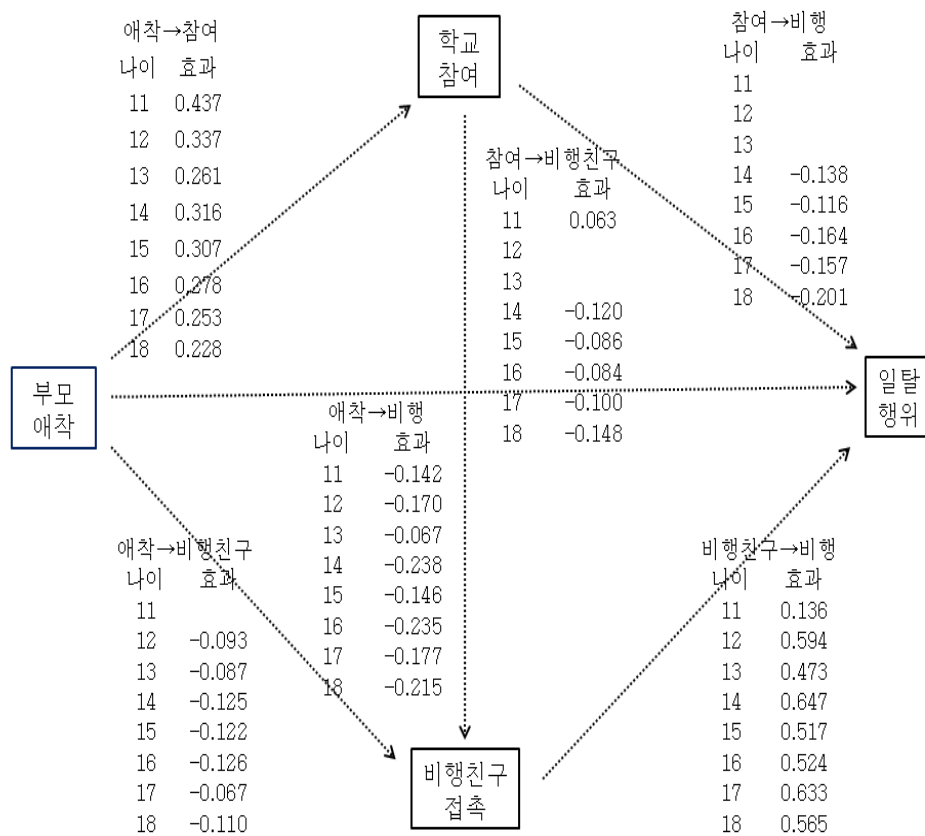
		χ^2	자유도	$\Delta\chi^2$	Δ 자유도
등치제약모형		25,213.902	1,210	-	-
자유모형 (Free Model)	부모애착→비행	25,138.919	1,203	74.983	7
	부모애착→참여	25,182.607	1,203	31.295	7
	부모애착→비행친구	25,146.531	1,203	67.371	7
	참여→비행	25,158.263	1,203	55.639	7
	참여→비행친구	25,156.217	1,203	57.685	7
	비행친구→비행	23,683.389	1,203	1,530.513	7

위 표에서 모든 Free 모형들은 등치제약 모형보다 자유도가 7이 작다. 이것은 각 자유모형에서 여덟 개의 연령집단의 하나의 경로를 자유로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자유도 차이가 7일 경우 χ^2 의 한계값은 0.05 수준에서 14.1이며, 위 표에 따르면 모든

자유모형들은 등치제약모형보다 $\Delta\chi^2$ 값이 14.1보다 크다. 이것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령대별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령별 효과의 분석결과

아래의 [그림 3]에서는 조절효과의 결과가 가설의 기대와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모든 연령별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변인들 간의 효과의 연령별 크기($p < 0.01$)

첫째 가설,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 가설(부모애착의 비행 억제 효과는 11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이다)부터 검토하겠다. 이 효과는 부침²⁾을 반복하는 가운데 집단의 연령에 비례하여 높은 정도를 나타내는 경향을 보인다. 11세(-.142)보다 12세(-.170)가 높으며, 13세(-.067)는 다시 낮고, 중2인 14세(-.238)에는 다시 높다. 그 다음 15세(-.146)에는 다시 낮고, 그 후 18세까지 이전 나이와 비교했을 때 부침(-.235, -.177, -.215)을 반복한다.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가 반복적으로 부침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의 분석을 하기로 하며, 여기서는 학교 수준별 평균값을 상호 비교해보겠다. 초등학교의 평균값은 .156, 중학교는 .150, 고등학교는 .209로 나타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는 청소년기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약화되거나 사라지기보다는 오히려 강해졌다.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 가설은 지지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설, 부모애착의 비행친구접촉 억제 효과 가설(부모애착이 비행친구 접촉을 억제하는 효과는 11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약화될 것이다)을 검토해보자. 이 효과는 11세의 인구집단을 제외한 모든 연령의 인구집단에서 발견되었다. 유의미한 효과들은 최소 -.067(17세)부터 최대 -.126(16세)의 범위에 있으며, 이것은 이 효과가 후기 청소년기 초기(18세)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가설에서처럼 학교 수준별 효과 평균값을 구해보면, 초등학교(.093)와 중학교(.111)와 고등학교(.101)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접촉억제 효과는 12세와 18세의 청소년기의 전 시기에 걸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접촉억제 효과 가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서 지지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 번째 가설, 부모애착의 학교 참여 촉진효과 가설(부모애착이 학교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는 11세에서 18세에 이르기까지 약화될 것이다)을 검토하겠다. 부모애착이 학교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는 13세의 인구집단에서 효과의 흐름이 돌출적인 것을 제외한다면, 연령집단 간 효과의 차이는 11세와 12세 사이에서 .10으로 가장 크다는 점이 눈에 띄는 가운데, .437에서 .228까지 나이 많은 인구집단일수록 낮다. 부모애착

2) ‘부침’이라는 말은 시간적 관계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전 단계에 비해 효과의 정도가 높거나 낮음을 표현한다. 아래의 유사한 맥락에서 시간적 변화의 의미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이 등장하더라도, 이것은 단지 문제를 고려한 선택일 뿐, 비교적 관점의 진술을 함의한다.

의 학교 참여 촉진효과 가설은지지 근거를 발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가설,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 가설(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는 11세부터 18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입증의 근거가 발견되었다. 학교 참여가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11세와 13세의 인구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가설의 내용과 배치되지만, 14세부터 18세의 인구집단(-.138, -.116, -.164, -.157, -.201)에서는 고3에 해당하는 18세의 인구집단(-.201)에서 그 효과가 약간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설의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는 14세에서 18세의 연령에 대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다섯 번째 가설, 학교 참여의 비행친구접촉 억제 효과 가설(학교 참여의 비행친구 접촉 억제 효과는 11세부터 18세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에 대해서도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처럼 부분적인 입증의 근거가 발견되었다. 이 효과는 11세부터 13세까지의 인구집단에서 정적 관계로 나타났거나³⁾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이 연령에서 학교 참여가 비행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효과가 부적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14세부터 18세의 인구집단(-.120, -.086, -.084, -.100, -.148)에서이다. 역시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에서와 마찬가지로 18세의 인구집단(-.148)에서 그 효과가 약간 높은 가운데 효과의 크기가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 있어서, 가설은 부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마지막 가설,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 가설(비행친구 접촉의 비행 촉진 효과는 11세에서 18세의 연령집단에서 나이가 적은 인구집단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그 후 꾸준할 것이다)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효과는 11세의 인구집단(.136)을 제외하고는, 12세부터 18세까지 .50을 넘나드는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는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에서처럼 부침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세(.594)보다 13세(.473)는 더 낮으며, 중2인 14세(.647)에는 다시 높다. 15세(.517)와 16세(.524)는 낮아진 후 변화가 미미한 편이었고, 그 후 17세(.636)와 18세(.565)에 다시 높았다가 낮아진다. 12세에서 18세 인구집단에서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3) 이 의외의 결과를 이 인구집단에서 학교 참여가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고려한다면, 비행친구 접촉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비행이 발생한다는 사회화 관점(socialization perspective)과 비행청소년이 비행친구를 찾는다는 선택 관점(selection perspective) 가운데 선택 관점의 현실 적합성이 높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 가용한 자료는 이 추론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효과가 부침을 반복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의 분석을 시도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효과의 크기가 예외적으로 작은 11세 인구집단을 제외한 후 학교 수준별 평균 값을 비교하도록 하겠다.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는 초등학교(.536)와 중학교(.546)와 고등학교(.574)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것은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가운데 중요한 점들은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3> 변인들 간의 효과의 연령 간 효과의 추이

		기 대	경험적 결과	특 징
부모애착	→비행	점진적 약화	상승	반복적 부침
	→비행친구	점진적 약화	유지	12세 발현
	→학교 참여	점진적 약화	점진적 약화	12세 크게 하강
학교 참여	→비행	유지	14세-18세까지 유지	18세 상승
	→비행친구	유지	14세-18세까지 유지	18세 상승
비행친구	→비행	발생 후 유지	발생 후 유지	12세 크게 상승, 반복적 부침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가 11세부터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은 경험적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접촉 억제 효과가 11세부터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이 효과가 경험적으로 꾸준히 나타나 결과 입증되지 못했다. 반면 부모애착의 학교 참여 촉진 효과가 11세부터 18세까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가설은 경험적 지지의 근거를 발견하였다. 학교 참여 변인의 비행억제 효과와 비행친구 억제효과가 공히 11세부터 18세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설은 공통적으로 14세부터 18세의 연령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가 10대 초반에 상승하여 그 후 18세까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마지막 가설은, 상승의 시점이 12세라는 점을 특기한 가운데, 입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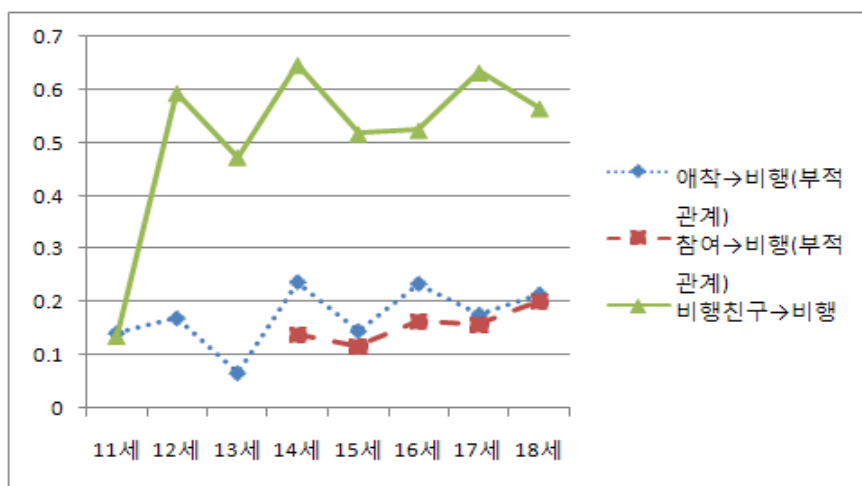
가설의 검증 결과 외에도, 변인들 간의 관계를 11세에서 18세 인구집단까지 빠짐없이 조사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비행 관련 변인들의 추이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학교 참여가 비행친구와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14세(중2)의 나이에 나타나기 시작하며, 18세(고3)의 나이에 - 손베리의 기대와는 달리 - 비교적 분명하게 상승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중2와 고3의 시점에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자각한다는 추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12세(초6)의 인구집단에서는 세 가지 변화, 즉 부모애착의 학교 참여 촉진 효과가 큰 폭으로 하강하며,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억제 효과가 발현하며, 또한 비행친구의 비행 촉진 효과가 크게 상승하는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 세 변화 간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제시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그렇지만 세 가지 변화가 하나의 인구집단에서 동시 발생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하나의 추론적 결론을 제시하자면,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의 상승이 한 편으로는 부모애착의 학교 참여 촉진 효과의 하강과 다른 한 편으로는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억제 효과의 발현을 결과하였다는 설명이 가능하겠다. 이 추론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초6의 나이가 비행으로 인한 최초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점을 비교적 분명하게 시사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이는 것은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와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가 반복적 부침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통적인 변화들은 단순히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발생시켰을 원리를 - 추론적 해석을 통해서라도 - 추적하는 작업은 의의가 없지 않을 것이다. 다음의 [그림 4] 독립변인들과 비행의 상관관계의 연령별 추이 비교를 참조하자.



[그림 4] 독립변인들과 비행의 상관관계의 연령별 추이 비교

[그림 4]에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 선(Δ)은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를, 가운데 선($\diamond$)은 부모애착의 비행 억제효과와 절대값을, 아래의 선($\square$)은 학교 참여의 비행 억제 효과의 절대값을 나타내고 있다. 위 그림은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Δ)와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square$)의 연령집단 간 차이가 방향성이 항상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위 그림은 사회학습이론의 변인과 사회유대이론의 변인들의 연령별 추이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개의 추이는 16세까지는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16세-17세와 17세-18세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두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추론적 해석이 가능하겠다.

16세까지는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와 부모애착 및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가 동일한 방향으로, 즉 전자가 이전 단계보다 상승할 때는 후자도 상승하며 전자가 이전 단계보다 낮아질 때는 후자도 낮아진다. 이 현상은 효과들의 추이를 시계열적 관계에서 고찰할 경우, 하나의 변인 효과의 변화가 다음 시점의 다른 변인 효과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1세와 12세 인구집단 간 비행친구 접촉의 비행촉진 효과의 크기의 증가는 다음 단계인 12세와 13세 인구집단 간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의 크기의 감소를 결과하였으며, 11세와 12세 인구집단 간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의 크기의 증가는 다음 단계인 12세와 13세 인구집단 간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의 크기의 감소를 결과하였다는 것이다. 각 변인의 영향력의 변화가 다음 단계의 다른 변인의 영향력의 변화에 미치는 이러한 ‘반작용적’ 결과는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비행친구 변인과 부모애착 변인 모두에서 그리고 11세부터 16세까지 꾸준히(학교 참여 변인에서는 14세에서 16세까지) 발견된다.

그 후 16세에서 18세까지는 부모애착과 학교 참여가 각각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비행친구가 비행을 촉진하는 영향의 크기가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16세-17세에서는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가 커지는 반면 부모애착 및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는 작아지며, 17세-18세에서는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가 작아지는 반면 부모애착 및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는 커지고 있다. 16세부터 사회학습이론의 변인과 사회유대이론의 변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 구간에서와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전 단계의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의 증가가 다음 단계의 비행친구 접촉의 비행촉진 효과의 증가를 결과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16세-17세 구간과 17세-18

세 구간에서의 변인들의 효과의 변화는 전 단계의 상대 변인의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일종의 ‘자동적’ 움직임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16세부터는 부모애착이 비행 억제하는 효과와 비행친구가 비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자동적인 움직임을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V. 요약과 함의

본 연구에서는 손베리 모델에 기초한 연구모형을 가지고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과 학교와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령별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손베리 모델은 사회유대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의 통합이론으로, 청소년의 주된 생활공간을 고려하며 발전론적 측면에 대한 체계적인 진술을 제시한 이론이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과 학교 참여와 비행친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의 연령별 차이를 분석할 목적으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자료를 횡단적 자료로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11세에서 18세까지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자료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하위 연령집단 간에 상응하는 경로에서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가 차이가 있는지를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방법 가운데 조절효과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손베리 이론에 기초한 연구모형을 우리나라의 11세에서 18세에까지의 청소년들의 경우에서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된 연령의 범위 내에서 부모애착의 비행억제 효과는 - 반복적 부침을 보이는 가운데 - 상승하는 경향을,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접촉 억제 효과는 꾸준히, 부모애착의 학교 참여 촉진 효과는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학교 참여의 비행억제 효과와 비행친구 억제효과는 14세부터 18세의 인구집단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친구의 비행촉진 효과는 12세의 인구집단에서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을 특기한 가운데, 그 후 일정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11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연령대를 조사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 관련 변인들의 추이에 대해서 몇 가지 망외의 결과를 생산하였다. 첫째, 학교 참여가 비행친구와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는 14세(중2)와 18세(고3)에 이전 연령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이 중2와 고3의 시점에 보다 분명하게 자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12세(초6)의 나이에 비행친구의 비행 촉진 효과의 상승과, 부모애착의 학교 참여 촉진 효과의 하강과 부모애착의 비행친구 억제 효과의 발현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초6의 나이가 비행으로 인한 최초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사회유대이론의 변인인 부모애착 및 학교 참여와 사회학습이론의 변인인 비행친구는 그 효과의 연령별 추이가 16세까지는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17세 이후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움직임은 16세까지에 대해서는 사회유대이론의 변인과 사회학습이론의 변인의 효과가 각각 이전 시점의 상대변인의 효과에 대한 ‘반작용적’ 결과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7세 이후에 대해서는 각 이론의 변인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손베리가 비행 발생에서 초기 청소년기에는 가정의 역할을 중간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비행친구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던 것과는 배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 발생에서 초기 청소년기에 이미 비행친구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으며 중간 청소년기에도 부모애착의 억제 효과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전 시기에 걸친 비행의 발생에서 사회유대이론의 변인과 사회학습이론의 변인이 주도권을 주고받는다기보다는 두 이론의 변인들이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청소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위(III. 1)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두 개의 독립적인 패널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자료를 구축하는 구조적 단점을 감수하는 전제에서 기획되었다. 이 방법을 선택했던 것은 한 편으로는 이것이 우리나라 청소년 전반기에 걸친 비행과 비행 관련 변수들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과, 다른 한 편 개별 조사 자료가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적 제한점들은 본 연구의 결과들을 제한적이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변수들의 경향과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상대적이며 잠정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며, 추후 방법론적으로 보다 튼튼하게 설계된 연구에 의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노성호(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pp. 243-275.
- 노형진(2002).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 범주형 데이터 분석 및 공분산구조분석. 서울·대구: 형설.
- 이상문(2007). 비행발달과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의 비교 연구: 잠재적 특성 시각과 생애과정 시각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pp. 1129-1158.
- 이성식(2001). 청소년비행에 있어서 내적 성향론과 생애과정론의 논쟁에 관한 경험적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3권, pp. 243-269.
- 이성식(2002).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인과관계. *형사정책연구*, 제13권 제1호, pp. 67-87.
- 이순래(1995). 범죄지속의 원인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3권, pp. 107-138.
- _____(1996).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8권, pp. 39-64.
- 이순래·박철현(2000). 범죄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틀: 발전범죄학의 대두와 전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9권, pp. 81-125.
- 이 철(2008). 가정, 비행친구, 비행의 상호인과관계에 대한 발전론적 연구 : 손베리 모델의 부분 검증.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9권, pp. 177-204.
- 이학식, 임지훈(2007).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6.0. 서울: 법문사.
- Agnew, R.,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Crime over the Life Course: A Strain Theory Explanation. T.P. Thornberry(ed.), *Developmental Theor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 101-132.
- Akers, Ronald L., (1977). *Deviant Behavior: A Social Learning Approach*. Belmont, CA: Wadsworth.
- Bentler, P. and D. Bonett,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Vol. 88 No. 3, pp. 44-59.
- Bollen, K.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Wiley.
- Fornell, C., (1983).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 Com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9 No. 3, pp. 443-448.

- Glueck, S. and E. Glueck, (1950). *Unraveling Juvenile Delinquenc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ir, J. F., R.E. Anderson, R. L. Tatham, and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ng, S. J., (1999). Age-Varying effects of family, school, peers on delinquency: A Multilevel modeling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Vol. 37 No. 3, pp. 643-685.
- Jang, S. J., (2002). Age-Varying effects of family, school, peers, and attitudes on adolescents' drug use: Do they vary with age?. *Justice Quarterly*, Vol. 19 No. 1, pp. 97-126.
- Jöreskog, K. G. and D. Sörbom,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c.
- Matsueda, Ross L.,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7, pp. 489-504.
- Miller, W., (1959). Norm-Violating Behavior in Middle Class Culture. W. Kvaraceus and W. Miller(Eds.), *Culture and Individual*. Washington.
- Thornberry, T. P., (1987). Toward an interactional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Vol. 36 No. 2.
- Thornberry, T. P., A. J. Lizotte, M. D. Krohn, M. Farnworth, and S. J. Jang, (1991). Delinquent peers, beliefs, and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interactional theory. *Criminology*, Vol. 32 No. 1, pp. 47-83.
- Thornberry, T. P., A. J. Lizotte, M. D. Krohn, M. Farnworth, and S. J. Jang, (1994). "Testing interactional theory: An examination of reciprocal causal relationships among family, school and delinquenc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Vol. 82, pp. 3-3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about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by Age

Lee, Chu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family, school, and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t behaviors and how they vary depending on the age of the youth concerned. This paper also examines a number of hypotheses based on Thornberry's Interactional Theory, employing the regulation effects analysis method upon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Data for each age population from 11 to 18 years old was taken from the elementary panel and middle panel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comparison of the effects by selected variables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In the case of Korean youth,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delinquency were higher in proportion to age, and the effects of parental attachment on delinquent peers were constant, both contradicting the hypothetical expectation. The effects of the parental effects upon school commitment were seen to decrease in proportion to age, supporting the corresponding hypothesis. The effects of the level of school commitment upon delinquency and delinquent peers were found only among the age population aged from 14 to 18 years old, partly supporting the corresponding hypothesis. The effects of the delinquent peers on delinquency showed a rapid increase at age 12, which then maintained a high level through to age 18. In addition, this study, being the first research exercise which investigated all age populations of Korean youth, uncovered a number of interesting facts. The most remarkabl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in the case of Korean juvenile delinquency, an opposition structure of family and delinquent peers is maintained amongst almost all age groups.

Key Words : Thornberry, Interactional Theory, Juvenile Delinquency,
Delinquent Peer, Parental Attachment, School Commitment

투고일 : 3월 11일, 심사일 : 5월 12일, 심사완료일 : 5월 20일

* Dongyang University